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을 제안하며...

1. 부산경남지역 여학생운동의 역사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란 전체 변혁 운동의 객관적 발전 정도와 여성운동의 역량 성숙에 힘입어 학생운동내에서 선진적인 여학우를 중심으로 하는 여학생의 조직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연대 협의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대협은 그간 여학우들의 고립적이고 산발적인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지도하고 각 학교 여학생조직기반의 강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84년 이후 제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온 경험 속에서 여학생운동을 인식해 나가기 시작한 선진 여학생들은 86년 부천 성고문사건을 대하면서 반독재 전선에 여학우의 단결된 투쟁력을 확신하게 되었고 87년 6월 항쟁의 과정에서 조직적 대응력을 갖출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학생운동을 정립하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제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이라는 개념이 여학생운동 주체들에게 제기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87년 하반기 부산 경남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 건설과 함께였으며 그전까지는 여성운동이라는 포괄적인 운동의 개념으로서만 논의되었습니다.

90년 1월 전국 여학생 간부수련회를 거치면서 '여학생운동은 여학생들의 자주성을 드높여내는 운동'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공유가 일정 징도 이루어졌다. 즉 여학생운동은 여학생을 주체로 세워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성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시켰고 이것에 기초하여 여학생운동 또한 사회변혁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자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대협의 결성은 각 학교마다 여학생 조직문제제기와 토론이 활발히 벌어졌고 독자적 사업영역을 넓혀 나가며 여성운동이 학생운동 내에서도 자기 방향을 잡아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산경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는 89년 전대협의 지역개편에 따라 부여대협이 13개 대학이 참가한 부울여대협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역에서도 92년 경여대협이 마창, 진충으로 발전적 해체를 논의, 93년 마창여대협(건) 94년 마창여대협을 건설했고 진충지역은 경상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전문대라는 특성상 여대협을 건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경여대협에 대한 논의는 이미 92년부터 되어왔고 필요성을 절감했지만 주체적인 역량문제로 건설되지 못하였습니다. 부경총련 출범식이나 영호남 한마당 등에서 부울지역과 경남지역 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적으로 부경여대협 건설논의를 하였고 94년초 대표자들이 모여 건설결의를 모았습니다.

부산경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는 부울지역과 경남지역 여학생조직을 포괄하는 조직이고 94년 창립대의원대회를 열어내어 강령과 규약을 인준하고 부산대 총여학생회장을 의장으로 옹립하였습니다.

94년 부경여대협을 약평하자면

첫째는 부산경남지역 여학생운동의 단일한 조직을 건설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부경여대협은 부산, 울산지역과 경남지역의 학간연대와 단일적인 지도의 필요로 건설되었고 부산울산지역의 구체적인 투쟁성과(이형자씨 공대위, 여성연대모임)와 경남지역의 여성농민회와의 연대(농활에서의 여성농민반의 모범) 등의 성과와 모범이 서로 전파되지 못하고 경남지역의 분리로 인한 진충, 마창, 부울지역의 불안정한 조직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였습니다. 몇 년간의 논의 속에서 창립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내었고 이전의 일꾼만의 한마당 형식을 벗어나 학우들과 함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둘째는 여성계와의 연대를 모색하는 시기였습니다.

86주기 3.8 세계 여성의 날을 준비하면서 후원에서 벗어나 주최로 참여하면서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하였고 준비회의의 참여, 얼굴트기의 낮은 수준이었지만 여성단체에서도 일정정도 여대협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대협만의 독자모임을 가지면서 여대협의 자체역량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는 골간운동과의 결합을 모색한 시기였습니다.

양애리 학우 투쟁에서 서부총협, 부경,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부문의 내용을 전체 운동으로 확산시켜내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조국통일 투쟁에서 주한미군 범죄근절과 민족대단결을 위한 일본 내의 조선인, 특히 여학생들에 대한 폭행의 문제를 알려내었고, 전체 기조인 민족대단결과 연방제 합의 확산의 내용속에서 함께 도출해 내었습니다.

넷째는 전여대협의 튼튼한 지역근거지 였습니다.

부경여대협을 건설한 토대와 사상적 통일에 기반하여 6기 전여대협(건)의 지도력을 부경여대협에서 구성했다. 전여대협의 지역근거지로 자리매기하면서 양애리 학우 투쟁의 전국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여대협 사업속에서 모범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기부경여대협은 먼저 명실상부한 여학생조직의 지도단위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94년이 창립기로서 그 토대를 만드는 시기였다면 2기 부경여대협은 그 토대를 튼튼히 하는 시기였습니다. 각 학교 여학생조직이 처한 현실(학교단위별로 전일적 체계를 이루지 못한 부분)과 각 학교마다 특수하게 처한 부분(체계나 골간학생화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여대협 중심으로 모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대협 체계를 안정화하여 정책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부경총련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였습니다.

94년 부경총련에 가입하면서 부경여대협이 부문운동으로서 부경총련과의 결합지점을 고민하였으며 여대협 의장을 부경총련과 한총련 중앙위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사회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안정화하였습니다.

부문운동의 생명은 그 전문성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내고 학원과 사회를 연결시켜 나가는 여학생운동이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이 전체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가진다고 했을 때 여학생운동 또한 여성운동의 원칙을 틀어쥐고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96년 3기 부경여대협은 2기의 평가 속에서 첫째, 부경여대협이 많은 지역을 포괄함으로 인해 발생했던 지도와 총화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체계개편을 시도하였다. 각 학교단위와 지구에 맞는 지도사업과 지구단위을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총화를 하였습니다.

둘째, 여학생운동의 사상적인 규명을 현 여대생의 특성 속에서 해명해 내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사상아래 기초단위에서 여대협까지의 전일적인 체계와 통일단결된 기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셋째는 이전시기 폭넓고 산만하게 진행되던 여학단위 투쟁을 96년에는 정신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는 결의를 대의원대회에서 힘차게 모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조통투쟁 속에서 정신대문제를 남북공동투쟁으로 가져가고자 하였으며 엽서쓰기 투쟁과 자교투쟁, 서명운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학우들 삶 속에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한 달에 '한 번 일본영사관 항의방문을 진행하면서 부경여대협 단위의 집회를 열어내고 일상적인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대 투쟁에서 또한 성과적인 지점은 연대투쟁의 관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학단위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함께 결합과 지지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전여대협의 모범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여대협의 지도력을 부경여대협에서 이루어내었고 전여대협의 중심으로 정신대 투쟁의 일상화와 연대항쟁 성회롱사건들에서 지역여대협의 전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기 부경여대협은 바로 부산·경남지역에 맞는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만들어 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하였던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7년 특별한 자료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대학교 총여학새회 회장을 의장으로 위안부문제 남 북 해외 3자 연대로 해결하자와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을 투쟁 목표로 활동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이라는 간부지를 발간하였고, 각종 소모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했습니다.

98년 부산대 총여학생회 회장을 의장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고, 부산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99년 동아대 총여학생회 회장을 의장으로 출범하여 활동을 하였고, 부경총련 권한대행을하면서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부경여대협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2000년엔 간부 1인과 임시 주체로서 부산대 총여학생회 회장님께서 활동하였고, 2001년엔 간부 인선도 되지 못한데다가 의장을 힘차게 결의한 학교가 없어서 결국 2년간 부경여대협은 공백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2년 부경여대협은 대의원 대회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동아대 총여학생회회장을 의장으로 2년간 없었던 부경여대협 조직을 부산 경남지역에서 다시 발전할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부경여대협 간부 학교를 통해 다시한번 부경여대협에 총여학생회를 묶어 내었습니다.

2. 10기 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 논의를 시작하며

부경여대협이 2003년 10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학생운동이 탄압을 받으면서 어려워질 때 부경여대협 또한 세워지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부경지

역 여학일꾼들의 힘과 지혜로 다시 투쟁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라 하지만, 위기는 곧 호기라 했습니다. 2003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경여대협 건설은 몇몇의 요구가 아니라 부경지역 10만 여학우 대중과 여성민중의 요구 인것입니다.
부경여대협 건설에 대해 여학일꾼부터 아주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로 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 과정은 한 대학에 제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닌 부경여대협의 공식적인 체계와 조직질서를 지키는 가운데서 진행되어야합니다.
둘째, 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의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현황 상 부산 경남지역의 모든 대학에서 책임지겠다는 공통의 결의의 과정에서 풀어져야합니다.
셋째, 여학생운동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 및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확보하는 자리로 성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론꺼리

1) 부경여대협은 10만 여학우의 대중조직이 아니라, 10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토론해봅시다.

2) 부경여대협의 위상은 어떠하고, 전여대협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어떠한지 토론해봅시다.

3) 상층조직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4) 부산지역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동지들과, 총여학생회 체계가 없는 부경지역의 각 학교 총학생회 여성국, 여성문제 연구 동아리 등과도 광범위하고 큰 틀로 여학생운동을 전개할 것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방도로 연대회의라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연대회의에 대한 상과 이 회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5) **부문계열운동조직이 자기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비단 자기 조직의 정체성을 찾는** 것 뿐 아니라, 전체 구국 운동에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무기입니다. 부경여대협이 지금보다 더욱 더 전문성을 가지고 투쟁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으며 어떤 사업이 있을지 토론해봅시다.

6) 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으로 우리대학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7) 위에서 제시된 부경여대협 지도력 구축의 원칙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제시된 원칙 외에 지도력 구축에 있어서의 원칙을 세워봅시다.

(보충글)부문계열운동

--학생운동내에서의 부문계열운동의 정의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문계열운동이란 학생이라는 사회적 처지 이외에 또 다른 처지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운동내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서 근거하는 학우 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운동입니다. 학생 부문 운동은 학생운동 속에서 학생이면서 또 다른 처지에 근거하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킴으로써 학생운동을 더욱 풍부화하며 사회 부문운동을 활성화 전투화시킵니다.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자주적 학생회는 백만학도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기반해서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부문계열운동의 역할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그 처지와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올곧게 수렴하고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골간조직을 내용적으로 풍부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단대-총학생회-지구-지역으로 이어지는 골간조직 외에 횡적 조직이 요구되어지며 여기에 부문계열운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 부문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화와 횡적인 부문계열운동의 실천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문계열운동의 실천적 의미를 통해 부문계열운동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 부문계열운동은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삶에 기반한 다종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렴, 대변,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학우들의 정서와 취향에 근거해서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투쟁형태를 아주 폭넓고 유연하게 내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 부문계열운동은 학우들의 구체적 생활적 요구에 근거한 조직건설을 아래로부터 이루어 내어 한총련의 조직역량을 강화합니다.

부문계열운동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로부터 그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학생구국운동에 떨쳐나섭니다. 민족자주교육쟁취, 민족문화의 대중화 등 부문계열운동의 활성화는 백만학도의 일반적, 특수적 이해를 담보하면서 한총련이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학생 부문계열운동은 전체 구국운동을 확대 강화합니다. 교대나 사범대 학우는 전교조와 여학우들은 여성 단체와 연대 등 부문계열조직은 사회운동 단체들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집단적 애국적 사회진출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 전문분야로 진출하는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학우대중을 민주적으로 의식화, 조직화합니다. 정치적으로 먼저 자각한 학우를 포함하여 앞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우들의 애국 민주주의에 기초한 전문별 내용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구국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 자질과 의지를 갖춘 훌륭한 일꾼으로 단련시켜냄으로써 구국운동의 확대강화를 활발히 벌여나가면서 사회운동에도 자극을 주며 관련 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해 구국운동을 한층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한총련 조직강화의 측면에서 부문계열운동의 본래의 역할과는 다른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각 지역, 지구, 대학간의 차이를 극복시킨 소중한 성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심지역, 지구, 대학간의 차이를 극복해내는데 부문계열운동이 그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전대협 6년의 역사를 이어 한총련으로 오면서 지역, 지구간, 각 대학의 차이를 극복시킨 소중한 성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심지역, 지구, 대학과 여타 지역, 지구, 대학간의 역량 차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부문계열조직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각과, 단대, 동아리, 학술, 문화교류, 등을 통해 한총련 백만학도의 연대를 이루어 내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조국 건설과 한총련 조직 강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어 그 차이를 줄여 갈 수 있습니다.